

11/27/22

설교 제목: 포도나무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15 장 1-8 절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 15: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장인 14 장 끝에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고 하셨음에도 만찬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시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 14:31)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을 포도나무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에, 하나님 아버지를 포도밭을 경작하는 농부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 장 말씀에 근거하여 비유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 5: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사 5: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사 5:3)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사 5:4)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됴인고

(사 5:5)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건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사 5:6)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복을 돋우지 못하여 찢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사 5: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박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구약을 보면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 80:3) 하나님이며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4)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시 80:5)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시 80:6)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 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시 80:7) 만군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 80:8)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겔 15:1)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겔 15:2)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포도나무는 올리브나무와 함께 유대인들에게 매우 친숙하고 유용한 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은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어 음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포도 열매라고 해서 모두 다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극상품 열매가 있고 그렇지 못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맛이 쓰고 빈약하여 버려야만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들포도나 야생포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만드시고 좋은 포도 열매를 기대하며 극상품 포도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포도 나무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좋은 포도 대신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짓밟히게 할 것이며 찢레와 가시가 나게 하고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여 황폐케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 포도나무는 유다 지파를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왕들이 있긴 했지만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나라 전체를 망하는 길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실망하셨고 분노하셨으며 이스라엘을 저주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새로운 유다 지파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참포도나무,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십니다.

(요 15: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당신을 그냥 포도나무라고 하지 않으시고 참포도나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참은 거짓과 대조되는 의미라기 보다는 불완전과 대조되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왕들과 같은 문제를 전혀 가지지 않는 참포도나무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 참포도나무라고 하신 것은 당신이 참된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성립시키신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붙어 있음에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요 15: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있어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아니하느냐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4 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의중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아니하느냐 보다는 참포도나무인 당신께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참포도나무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제거해 버리실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당신 백성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변화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 17: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느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중보자를 불신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체가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요?
존재한다면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해 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교제를 맺고 있는지요?

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 있지는 않지요?

진실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의식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을 더 많은 열매를 맺게하시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전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최상품의 열매는 꼭 필요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잘라내는 전지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전지 하십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자아가 죽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만 살게 되어 주님이 예비하신 삶,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삶, 참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하십니다.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해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원 받은 당신의 백성을 향해 당신 안에 거하라고 명하십니다.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진 자입니다.

그 마음 속이 온통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님으로 가득 찬 자입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으로 생각하여 주야로 묵상하고 사랑하고 높이는 자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죽은 가지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으시고 잘라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요 15: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나님에 의해 잘라 버려진 가지는 말라 불살라질 것입니다.

겉 모습만 가지고 있다가 떨어져 나간 자들은 영원한 심판이 이르기도 전에 이 세상 가운데서 조롱받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과의 영적으로 연합되어 살아있는 교제가 있는 자들이 맛보게 될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자들은 기도하는대로 이루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주님과 연합한 모든 신자들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히 4:14)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 4: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고 아무 기도나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 15: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 영혼 구원을 말합니다.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래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었으나 참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음으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되고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리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